

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노동투쟁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시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동의한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홍익인간」 개념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기본정신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존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구차스럽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존재」 할 수 있는 모든 규율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 속에서는 기업이라는 집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기업집단은 이윤을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거나 이윤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존재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며, 존재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적절한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전개하고, 능력있는 노동력을 투입해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 우위를 점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투자하게 된다. 즉 자본과 경영과 노동 3자가 어우러져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게 된다.

이중 자본은 기업설립의 근간이고, 경영은 기업 성장발전의 요체이며, 노동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본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경영능력과 노동력이 투입된다 해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경영능력의 문제가 도출하게 되면 기업은 현상에 머무르거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능력있는 그리고 애사심을 갖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 자본과 경영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좋은 자본력과 경영능력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87년 6.29선언 이후 사회현상이 일시에 뒤바뀌면서 기업경영에서도 이러한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행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6.29선언 8년동안의 현상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사화합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무리한 요구와 「정치투쟁」으로 노동운동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의 존재요소인 자본과 경영을 부인하는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위장,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내든 적자에 빠져있든 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하고, 기업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투자재원은 은행빚으로 충당하고 이윤의 대부분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쏟아부어야 직성이 풀리며, 자본과 경영은 아예 무시된 채 노동만이 전부인 사회일탈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지않아도 급료는 주어야 하고, 능력은 홍콩·싱가폴에 뒤지지만 급료는 미국·일본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저축은 뒷전이고, 교통지옥 속에서도 자동차는 몰아야 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유흥을 만족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과장급 근로자의 생활형편은 과연 우리나라 과장급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과장급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부장 또는 이사급과 맞먹는 연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과연 그들이 좋은 차물고 주말이면 후지산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자본과 경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기업발전의 요점인 재투자를 위한 자금축적을 부인하는 기업의 노동운동, 그리고 국가의 동맥인 통신을 위협하며, 서울 시민의 발목을 잡아놓는 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 정치를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치투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상의 노동투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국시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할 시점이며, 불법의 온상인 공기업을 보호해주는 악법의 개폐

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싶다면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다.

<화학저널 1995/7/3>